

시내버스 정기권 편의점 판매

전주시-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GS리테일-캐시비, 업무협약... 5월부터 상시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이 오는 5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전주시와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이사장 김진태), GS리테일(사장 조운성), 캐시비(대표이사 이근재)는 10일 전주시청에서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시(시장 김승수)와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이사장 김진태), GS리테일(사장 조운성), 캐시비(대표이사 이근재)는 10일 전주시청에서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그간 주민센터와 관광안내소 등 21개소에서 근무시간(9~18시)에만 판매·충전이 가능했던 정기권을 전주·완주 지역 GS편의점 190여 개소에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GS리테일은 GS편의점을 방문하면 언제나 시내버스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는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확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카드 발행 관련 제반 사항을, 캐시비는 카드의 제조 및 공급, 카드의 운영 서비스 일체를 담당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GS편의점 단말기를 통해 손쉽게 시내버스 정기권을 구매·충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되면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져 정기권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와 시내버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했다. 정기권은 ▲1일권 5,000원 ▲2일권 9,000원 ▲30일권 4만원 등 3종으로 구성돼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정책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정기권 제도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추진한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정기권을 활성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교직원·부모 대상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전주시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는 오는 18일부터 2개월간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부모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신학기 맞이 '아동존중 특별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은 ▲아동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사례별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교육 ▲영유아 성문제행동 대응관리 담당자 교육 등으로 구성돼 총 15차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담당교사들은 보육활동을 진행하면서 아동에게 성문제행동 교육을 하게 된다.

부모교육의 경우 ▲존중받는 아이 함께 키우는 부모 ▲아동학대 0%, 가족 행복 100% 등 총 5차시로 구성됐다.

전주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진행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 방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태원)는 10일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결과 고위험군에게는 원·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은 매주 수요일마다 제공된다. 시는 또 같은 날 마음치유상담소(전주시혁신크린센터)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감정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11일 오전에는 전주교육복지플러스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소'를 연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의 위험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문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소는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열릴 방침이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재해구호협회, 재난·재해 극복 업무협약

예방·피해 최소화·이재민 위한 성금 모금·지원 등 협력키로

전주시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10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재해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등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난·재해 이재민 등을 위한 성금 모금 및 지원 ▲이재민에 대한 자원봉사 및 구호활동 지원 ▲재난취약계층 주거개선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취약계층에 7만 원 상당의 희망꾸러미 700세트를 제공하고, 3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50가구에 지원키로 약속했다.

시에 앞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대응인력을 위해 히트택, 넥워머, 손난로 등 방한용품 1,500세트를 지원했다. 또 재난 취약계층 500가구에 국민관광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후원했다.

정부포상증서용 전통한지 제작 위한 간담회

전주시, 전국 전통한지 장인·한지 생산업체 관계자 등 참석해 공급·품질 향상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가 장관 명의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주시가 한지장 등 전문가들과 전통한지 공급 및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는 지난 9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박후근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과 가평, 원주, 안동, 함양, 괴산, 입실 등 전국의 전통한지 장인, 한지 생산업체 관계자, 한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포상증서용 전통한지 제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표창용지로 사용되는 등 전통한지의 품질향상과 수요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박후근 행안부 상훈담당관은 정부포상증서용 전통한지 구입 현황과 전망을 설명했으며, 한지장들은 샘플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통한지의 제작 및 납품 과정을 소개했다. 또 각 지역의 한지 생산업체와 전통한지 장인들은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와 산하기관, 정부 등 공공 부문의 전통한지 사용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한지 마케팅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한국전통문화재단 내에 순한지 판매장을 개설하는 한편, 전통한지 인적자원의 계승을 돕기 위해 신협중앙회 후원으로 전주 한지장인 후계자 양성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정부훈포장용 전통한지 1만8,000장을 납품한 바 있으며, 한지 표창장과 임용장(A4 사이즈) 용도로 2017년 8만 장, 2018년 105만 장, 2019년 112만 장, 2020년 120만 장으로 판매량을 늘려왔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는 1,000년이 넘게 지속돼온 세계 최고의 한지라는 전통종이를 복원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조성될 예정인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한지는 기계한지에 비해 2~3배 정도 가격이 비싸지만, 보존성이 우수하고 색상이 고우며, 표면의 질감이 부드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께감도 좋아 닥섬유가 살아있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